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모 입당 / 11월 21일

루가 제9주일

오바디아 예언자, 성 발람 순교자
성 일리오도로스 순교자

제7조 / 조과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 204, B 237
- 사도경: 에페소 2, 14-22 / 봉독서 318
- 복음경: 루가 12, 16-21 / 129, B 7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은 성인께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떤 여배우가 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하면, 아마도 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영혼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 작은 쉬운 실천들을 통해서,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좀 더 크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그리스도께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그리스도이전의 세상은 여러 다른 민족들이 서로 분열되어 살았고, 특히 종교는 매우 다양하게 여러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크게 구분해서 우상숭배자들과 유대인들로 구분할 수 있다.

우상숭배자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든 존재했었고 민족과 말은 서로 다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같았다. 진리의 하느님은 모르는 채 창조물인 자연을 섬기며 그것들이 마치 자신들의 몸과 영혼을 구원해줄 신이라고 믿고 살았다. 물론 시대는 달라졌지만 지금도 창조물을 믿고 의지하며 미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넘쳐나고 있다. 돈, 명예, 권력, 섹스, 마약, 도박, 게임, 휴대폰 등등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미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 그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오히려 버림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세상이 싫어 세상을 등지고 자연과 벗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심정은 '너무 편안하다.' 라는 것이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이다.

하느님은 거룩한 계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알려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등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그의 존재를 알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하느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르려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더 신뢰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 보이는 기적을 더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 같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느님이 먼저 보여 주시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아집에 빠져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고집스런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그 자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하셔서 그의 존재를 알려 주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므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불신과 우상숭배자들의 그릇된 거짓 신들의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유대인들과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적으로 한 식구가 되었다. 말과 민족은 다르지만 진리의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한 가족이 된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선택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선택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한 가족이 되어 서로 겸손하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다 함께 그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생명의 말씀들 3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만일 하느님이 너의 마음 안에 계시길 바란다면, 그분의 뜻에 합당치 않은 일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에게서 떠나실 것이고, 네 안의 보화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모든 일에서 할 수 있는 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이 네 안에 머무시는 동안 그분 뜻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라. 만일 네가 그분을 화나시게 한다면, 그분은 너를 떠나실 것이다. > 타데오스 (세르비아 비토브니차의) 원로

우리는 반반인가?

우리가 그저 절반의 그리스도인일 때 어떤 용서를 받게 될 것인가? 곧, 절반은 그리스도에게서이고 절반은 악마에게서인가?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이다. > 성 요한 흐리소스툼

모든 비극의 뿌리는...

자만심이나 우월감은 끔찍한 어둠이다. 그것은 거룩한 선과 정반대이고, 모든 악의 시작이며, 온갖 비극의 뿌리이고, 미움을 심는 자이고, 파괴적인 이기주의가 생겨나는 모든 악의 몸통이다. 그리스도는 '빛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이 참된 빛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자명한 진리인 그분 자신을 느낀다. > 요셉 원로(아토스 산 바토페디 수도원)

오직 입구만 있고 출구는 없다...

내 마음에는 오직 입구만 있고, 다른 출구는 없다. 만일 누군가가 그 안으로 들어온다면, 비록 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어떻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나의 사랑은 식지 않을 것이다. > 에피파니오스 테오도로폴로스 원로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철야 예배** ▷ 오는 12월 1~2일에 양구 성 안드레아 수도원에서 철야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1일 금요일에 출발하여 2일 토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숙소 예약과 식사 준비를 위해 필요하니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사무실로 11월 26일까지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2만 원입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결혼을 축하합니다** ▷ 지난 11월 11일(토)에 엘리야 최원규 교우와 알렉산드로스 한의 종 사제의 자제인 마리아 한은혜 교우가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테올로고스 수도 사제,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사제 그리고 요한 박인곤 보제의 공동 집전으로 결혼성사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올바른 정교회 가정을 이루어 마지막 순간까지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가을 소풍** ▷ 지난 11월 12일 주일 성찬예배 후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성당에서 멀지 않은 미포조선체육공원에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와 테올로고스 수도사제와 요한 박인곤 보제가 모든 신자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함께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먹고, 피구, 달리기, 보물 찾기 등 재밌는 게임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와 테올로고스 수도사제로부터 영적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풍을 준비하고 진행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간 예식

- 11월 21일(화) ▷ 성모 입당 축일
- 11월 25일(토) ▷ 성 에카테리나 대순교자, 성 메르퀴리오 대순교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